

영암 청소년들, 경희대학생들에게 공부법·진로 물어

사회혁신스쿨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 참여 대학생들과 멘토링 시간 가져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고, 테니스에도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암중 심형준 학생의 바람에 경희대 체육학과 이준수 학생은 구체적 방향 설정이 먼저라고 조언했다.

“체육 선생님이 꿈이라면, 체육학과에 진학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 아직 중학생이니 체육 선생님이 될 구체적 내용을 먼저 꼼꼼히 알아보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테니스 실력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테니스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 지도자·심리학자·마케팅전문가 등 다양한 진로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영암중학생 15명과 경희대학생 14명이 21일 영암군 영암읍 달빛정촌마루에

서 열린 ‘청소년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티와 멘토로 만났다.

이 대학생들은 영암군과 경희대의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2025 사회혁신스쿨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26일 동안 영암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 도시 재생, 청소년 멘토링 등 지역을 혁신할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다.

형준·준수 학생 이외에도 디지털콘텐츠학, 조리서비스경영학, 미디어학, 외식경영학 등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은, 이날 영암 청소년들에게 자기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진로 상담 △공부 방법 △대학생활 등을 1:1로 설명해 줬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생활의 차이, 내신과 수능 준비 방법, 중·고등학교 공부법과 과목별 공부 전략 등을 묻



고 답하며 궁금증을 풀었다.

특히, 영암 청소년들의 사전 멘토링 신청서를 받아 본 대학생들은, 동료들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상담자를 배정하는 등 맞춤형 답변으로 처음 만난 지역 청소년들과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배드로 영암중 학생은 “평소 관심 있던 전공을 대학생 선배에게 들을 수 있어 진로에 대한 생각이 더 구체화됐다. 진로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 좋은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한빛원자력본부, ‘친환경 유기농법 조성사업’ 지원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민)는 4월 21일 영광군 백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형근)과 ‘친환경 유기농법 조성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수원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친환경 유기농법 조성사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빛본부는 2010년부터 본 사업을 지

원해 왔으며, 올해도 백수읍에 2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백수읍 1,100ha 농지에 혼합유기질, 유기 복합 비료 등 총 7만 9천 포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여 지역 농가의 수익 증대가 기대된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대표기업으로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가족과 함께 떠나는 강진 역사 여행, 다산가족캠프

전국 7개 시도 11가족, 병영성축제 즐기고 정약용 청림 따라 걷다

강진군 다산박물관(다산청림연수원)이 지난 제28회 전라병영성축제와 연계한 다산가족캠프 3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다산가족캠프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대전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강진을 찾은 11가족 38명이 강진의 유적지와 지역축제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

참여 가족들은 첫째 날 가우도 해양레저 체험 후 고려청자박물관 관람, 청자 조각 체험을 했다. 둘째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청림 현장을 체험한 후 전라병영성축제를 방문해 전라병영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캠프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다산가족캠프에 참여한 가족 중 6가족 21명이 다산가족캠프 종료 후 추가로 숙박하며 강진 여행을 이어갔다.

김선제 다산박물관장은 “다산가족캠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 가족까지 참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참여 희망 가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축제와 방학을 연계한 가족캠프를 알차



게 진행해 강진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가족캠프는 앞으로 수곡길축

제,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을 통해 3회, 150 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나주시의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다음 주자로 윤병태 나주시장, 이주희 동신대 총장 지목

전남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재남 의장은 “인구문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18일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이재남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헌혈로 사랑을 나눠요’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헌혈, 기념품 대신 기부로 따뜻함 더해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1일,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헌혈로 사랑을 나눠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은행 본점 앞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진행됐으며,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광주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본점에 입주한 협력사 직원들도 동참해 현장의 온기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헌혈 참여 외에도, 기념품을 대신해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헌혈 기부권’과 헌혈증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참여자들의 행렬이 이어지며 나눔의 가치가 실현됐다.

광주은행은 2018년부터 매년 헌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 안정과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연중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승원 기자



진도농아인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협회장 이·취임식 성황

진도군 농아인들의 권익 신장과 사회 통합을 위해 활동해 온 진도농아인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과 함께 협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4월 17일,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원들과 가족을 비롯해 진도군청, 전라남도농아인협회 관계자, 지역 인사 등 2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제4대, 제5대 양세용 회장이 이임, 신임 이보라 회장이 제6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협회의 새로운 리더십을 알렸다. 신임 회장은 “농아인 회원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도/오재영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BUSAN is READY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